

к с і

禪茶一如의 詩境

-梅月堂의 茶詩를 중심으로-

林俊成*

<차 례>

1. 머리말
2. 禪과 茶의 관계
3. 梅月堂의 茶詩
 - 1) 僧侶와의 交遊
 - 2) 相卽相入의 禪味
4. 맺음말

1. 머리말

梅月堂 金時習(1435~1493)의 詩 2,200여 수 가운데 茶를 소재로 또는 주제로 삼은 작품이 『梅月堂全集』¹⁾에 67편 73수 전한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우리나라에 茶가 전래²⁾된 이래 僧俗을 통틀어 가장 많은 茶詩³⁾를

* 한양대학교

1) 본 연구는 宣祖 16년에 李山海가 序文을 붙여 예문관에서 갑인자로 간행한 『梅月堂集』(甲寅字本 23권 11책, 新活字本)과 原集, 續集, 別集, 外集, 附錄으로 새로 영인한 『梅月堂全集』(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년)을 주자료로 삼았다. 詩文의 翻譯은 『國譯 梅月堂集』(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을 참고하여 필자 나름대로 번역했음을 밝혀둔다.

2) 茶가 문헌상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려시대 金富軾의 『三國史記』에 전한다. 신라 興德

남겼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는 단순히 茶를 마시고 이에 대한 느낌만을 詩化시킨 것만은 아니다. 직접 몸소 차를 재배하기도 하고 만들면서 그 자신 또한 茶의 性品에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한 점은 그의 삶에 茶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그의 茶詩를 살피는 것은 茶를 飲用차원에서 벗어나 禪的으로 수용했다는 점은 그의 시에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2. 禪과 茶의 관계

佛家에서 茶를 수행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趙州從諗(778~897)의 ‘喫茶去’라는 公案이 대두된 것에서 비롯된다. 趙州의 ‘茶 한 잔’의 공안은 茶 한 잔을 통해 서로가 分離되지 않는 緣起實相의 세계가 온전하게 그대로 드러나면서 모든 존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는 선가의 수행법인 것이다. 이는 한 잔의 차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진실되게 지켜보는 직접적인 체험이기에 선가에서 자주 애용되는 공안이기도 하다.

趙州가 두 사람의 새로 온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들은 전에 여기 와본 적이 있는가?”

한 스님이 대답했다.

“와 본 적이 없습니다.”

王 828년의 기록을 보면 “唐에서 돌아온 사신 大廉이 茶의 種子를 가지고 오니, 왕은 그것을 地理山(오늘날의 智異山)에 심게 하였다. 차는 善德王 때부터 있었으나 이 때에 이르러 성하게 되었다. 入唐廻使大廉持茶種子來 王使植地理山 茶自善德王時有之 至於此盛焉”하여 이 시기에 우리의 차문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만으로는 신빙성이 약하다. 『삼국유사』 駕洛國記에 보면 首露王妃 許黃玉에 의해 인도로부터 전래되었다는 기록과 차씨의 화석조사 결과 이 땅에도 원래 자생하고 있었다는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여기서 茶詩는 일정한 양식적 틀을 지닌 한시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茶를 소재 또는 주제로 삼은 일반적인 시를 가리키는 용어로 한정한다.

“茶 한 잔 드시게.”
 또 한 스님에게 물었다.
 “여기에 와 본 적이 있는가?”
 “와본 적이 있습니다.”
 “茶 한 잔 드시게.”
 院主가 스님께 물었다.
 “스님께서 와보지 않는 스님에게 차를 마시라고 하신 것은 그만두고라도 무엇 때문에 와본 적이 있는 스님에게도 차를 마시고 가라고 하십니까?”
 스님께서 “원주야!”하고 부르니 원주가 대답하자.
 “茶 한 잔 드시게.”⁴⁾

이 공안은 茶 한 잔을 마실 때 ‘있는 그대로의 차맛’을 안다면 그 마음은 바깥의 갖가지 대상이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여의기에 흔들리지 않는 빈마음의 평상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조주스님께서 觀音院에 처음 온 스님이나 한 번 와본 적이 있는 스님에 대해서 똑같이 ‘茶 한 잔 드시게’라 한 것은 참선을 하기 위해 온 스님들에게 ‘무엇인가 얻고자 들고 온 마음’을 놓게 하려는 방편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차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그대들의 마음 또한 욕심이다. 따라서 그 마음을 놓지 않고서는 禪에 이를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을 놓고 부처를 떠나 마음을 비우고 차를 마시듯이 禪을 참구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주스님은 ‘茶 한 잔 드시게’라는 말 한 마디에 갖가지 망상을 제거하고 평상심을 유지하라는 것을 차를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원주는 오는 손님마다 똑같이 대접하는 조주스님의 행동에 의문을 품는다. 그 물음에 대해 조주스님의 답은 역시 ‘茶 한 잔 드시게’로 끝을 맺는다. 이는 사사건건 분별하고 의미 붙이기를 좋아하

4) 趙州從諗, 『趙州錄』, 藏經閣, 1991 : 師問二新到 上座曾到此間否 云不曾到 師云喫茶去 又問那一人 曾到此間否 云曾到 師云喫茶去 院主問和尚 不曾到教伊喫茶去即且置 曾到爲什麼教伊喫茶去 師云院主 院主應諾 師云喫茶去.

는 마음작용에 대한 경책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相을 취하지 않는 조주스님의 평상심을 엿볼 수도 있다. 마치 달빛이 연못 속을 꿰뚫지만 물에 흔적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선가에서 茶는 禪으로 가는 전제 조건으로서 방편이며, 언어기호⁵⁾로서 公案인 것이다. 흔히 선과 차는 같은 것이라 하여 禪茶一如라는 말을 애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엄연히 선과 차는 동일한 대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禪은 直觀하여 깨닫는 것을 본질로 하듯이 茶 한 잔을 통해 주관과 객관을 구별하지 않고 맛보는 주체와 맛이라는 대상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인드라마의 그물처럼 상호의존의 관계에서 一切가 空함을 깨닫는 것을 말하기에 禪茶一如라 한 것이다. 여기서 一如를 바닷물로 비유할 수 있다. 바닷물은 어디서나 짠맛을 낸다. 마찬가지로 차수행을 하거나 선수행을 하게 되면, 마치 여러 줄기의 강물이 모두 바다에 이르러 하나의 짠맛이 되는 것처럼 차와 선은 서로 相即相入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禪茶一如라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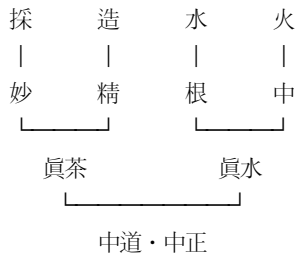
禪茶一如의 茶 한 잔을 내는 과정에는 中道の 특성과 맞닿아 있다. 茶를 지시적인 의미로 보면 禪家에서 飲用하는 기호품이다. 그러나 茶라는 언어기호의 경계를 넘어서면 깨달음의 直觀이라는 禪의 뜻을 함유한다. 直觀을 연기적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며, 연기적 존재라는 것은 일체제법이 모두 연기에 의해 실현되고 따라서 空하다는 中道の 세계를 말한다. 茶 또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茶에는 四門이 있는 데, 첫째는 찻잎 따는 문이다. 찻잎을 딸 때에는 시기를 가려 이른 아침에 따야 하며, 따는 순간 玄妙⁶⁾함을 느껴야만 차의

5) 이도흠, 「화두와 선시의 화쟁기호학적 연구」, 『백련불교논집』 제11집, 2001, 84~94쪽 참조.

6) 이른 아침 이슬을 머금은 찻잎을 딸 때 느끼는 깊고 미묘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이 때 힘들이지 않고 살짝 건드려만 쥐도 따는 느낌은 차와 나, 곧 주객의 일체가 되는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품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는 차만드는 문이다. 갖따온 차잎으로 차를 만들 때에는 오로지 精誠 一念으로 해야만 제대로 된 차가 된다. 여기까지는 眞茶, 곧 차의 완성 단계이다. 셋째는 물을 선택하는 문이다. 물은 茶의 體라 하여 根本에서 비롯된 것을 사용해야만 眞茶를 보일 수 있다. 넷째는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문이다. 불은 文武火候⁷⁾를 조절하여 中和를 이뤄야만 한다. 여기까지는 眞水, 곧 물의 완성 단계이다.



이 四門은 艸衣禪師가 中國의 『萬寶全書』를 참조하여 엮은 『茶神傳』의 내용을 도표로 작성한 것이다. 艸衣禪師는 이를 제대로 관장하기 위해서는 中正을 갖춰야 한다고 한다. 中正은 中道와 같은 뜻으로, 곧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평형상태가 깨어지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알맞은 상태를 유지해야만 茶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난다고 보았으며, 이는 선수행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禪茶一如라 한 것이다.

3. 梅月堂의 茶詩

梅月堂이 茶에 심취하게 된 이유는 조선후기의 茶僧이었던 艸衣禪師

7) 불을 다루는데 文은 불기운이 약한 것을 말하고, 武는 불기운이 강한 것을 말한다. 불기운은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알맞아야 하는 것으로, 알맞고 적절한 불기운을 잘 조절하는 것을 文武火候라고 한다.

(1786~1866)가 ‘옛부터 聖賢들이 모두 차를 사랑한 것은 君子와 같이 사됨이 없는 성품 때문일세 古來賢聖俱愛茶 茶如君子性無邪⁸⁾’라고 노래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梅月堂과 艸衣禪師는 약 300여 년간의 시간차가 있으나 옛부터 성현들이 차를 좋아했다고 했으니 어려서부터 儒家的 삶을 지향했던 梅月堂에게는 차의 성품에서 사됨이 없다는 점은 곧 인간의 性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道의 길과 상통한다고 보아 일찍부터 茶生活을 즐겼으리라고 짐작하는 것도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매월당의 문집 卷三에서 <釋老>라 하여 따로 편집될 만큼 승려들과 교류를 나누는 시가 여러 편 전한다. 방외인적 삶을 지향했던 그에게 승려들과의 만남은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자신을 추스르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차를 통해 그의 삶의 자세가 승려들과의 교류 속에서 어떠한 지향점을 찾고 있는지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의 소박한 삶이 차 한 잔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시세계가 相卽相入의 禪味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승려들과의 교류

매월당은 젊은 적 품었던 꿈이 세조의 왕위 찬탈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자, 세상에 대해 단념하고 전국을 주유하며 방외인적인 삶으로 일관했다. 시대와의 불화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 흔적은 그의 시문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은 승려들과의 교류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차 한 잔을 매개로 하여 佛道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는 점이 그 특색이라 하겠다.

參透禪關話葛藤 선의 관문 뚫으려고 갈등을 말하는데
列峰如戟碧層層 창처럼 늘어선 봉우리가 층층이 푸르는데

8) 艸衣意恂, <奉和山泉道人謝茶之作>, 『艸衣詩藁』.

尋根拔薤君知否	뿌리 찾아 꼭지 뽑음을 그대는 아는가
摘葉尋枝我不能	잎새 따고 가지 찾는 걸 나는 할 수 있네
藥杵聲中敲翠竹	약 뿜아 방아 소리가 푸른 대를 울리고
茶鑪影裏點紅燈	다관 그림자 속에 붉은 등을 켜놓았네
自然會得禪家趣	자연히 禪家의 뜻을 깨달아 알았으므로
肯向傍人說上乘	즐겁게 옆 사람 향해 큰 법을 얘기하네 ⁹⁾

위 시는 준상인에게 주는 시 연작 20수 가운데 17번째에 해당된다. 시 전면에서 禪關을 뚫기 위해 갈등을 말한다고 했다. 선관이란 깨침이자 해탈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갈등은 번뇌에 둘러싸인 迷妄이자 妄執이다. 창처럼 늘어선 봉우리가 층층이 푸르다고 한 것은 끊임없는 갈등에 고뇌하고 있는 시인의 맑은 마음의 상태이다. 곧 번뇌망상에 갈등하지만 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시인의 마음 상태가 푸른 색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갈등을 일으키는 근원을 캐내기 위해서는 뿌리채 뽑아야 하는 법, 잎새 따고 가지 찾는 것으로는 임시방편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妄執의 실체를 일시에 거둬야만 하는 것이다. 후반부에서 시상은 전환된다. 방아로 약 뿜는 소리가 푸른 대나무 소리에 어울리고 다관 그림자 속에 붉은 등을 켜놓았다는 것은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迷妄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관을 뚫는데 갈등은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그러나 차 한 잔을 통해 자연스레 禪家의 정취와 깨달음의 실체를 얻었으니 즐겁게 옆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차 한 잔이 중요한 매개가 되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梅月堂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동기는 모친의 별세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15세 되던 해인 1449년에 모친을 여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하고 인간적인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는 18세(1452년) 되던 해 송광사에서 모친상을 끝내고 그곳에 주석하고 계시는 峻上人과의 만남을 통해 불법을 논하게 되면서 점차 불도에 침잠하게 된다. 그는

9) <贈峻上人> 其十七, 『梅月堂集』 卷三.

뒷날 峻上人을 생각하여 「贈峻上人」 20수의 시를 연작하였다. 당시 그에게서 불교의 禪理 등 정신적 감화를 받은 사실을 序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峻上인은 禪門의 高僧이다. 처음에는 湖南의 은둔할 만한 곳에서 서너 해 동안 錫杖을 머물다가, 道力이 이루어지자 景勝地를 두루 여행하였다. 그러다가 홀연 한양을 방문하니 선비들과 부녀자들이 바퀴살 모이듯 하여 風聲을 바라만 보고서도 휩쓸려 教化하는 바가 그와 같은 사람이 다시 없었다. 마침내 이름난 재상과 불교를 독실하게 믿는 거사들이 한사코 청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늘 큰 發願을 다 맞추어주었다. 그것이 다 끝나자 다시 湖南으로 여행을 떠났으니, 용모와 풍채에 道骨이 있었다. 나는 壬申年(1452년) 여름에 상기를 마쳤는 데, 峻上인은 曹溪에 錫杖을 머무르고 있었다. 마침내 함께 上社臺에 머물면서 보니, 과연 평소에 듣던 바 그대로였다. 峻上인은 道理를 흠모하여 세속을 초탈하려는 마음이 말하는 표면에 뚜렷이 드러났다. 그래서 매일같이 禪道의 오묘한 關門에 대하여 여쭙었더니, 말씀이 낭랑하였다. 지난 날 찾아 구경한 경물을 인하여 문득 몇 편을 지어, 푸른 뽕 맑은 시내에서 먹고 자는 한 맛의 거리로 삼고 붓을 내달렸다.¹⁰⁾

위 序에서 알 수 있듯이 梅月堂은 모친상을 끝내고 송광사에서 머무르면서 당대의 고승대덕인 峻上人과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다. 梅月堂은 예전부터 峻上인에 대한 명성은 익히 들어왔으나 직접 대면하고 보니 과연 깨달음의 경지가 걸림없이 시원하였다고 칭송하고 있으며, 上求菩提 下化衆生을 濟度하는 실천수행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峻上인은 道理를 흠모하여 세속을 초탈하려는 마음이 言辭의 바깥에 뚜렷이 드러났다’고 한 것으로 보아 禪理의 깊은 뜻을 바로 깨치고 眞俗不二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梅月堂은 송광사에서 머무르는 동안 매일

10) <贈峻上人二十首> 序, 『梅月堂集』 卷三: 峻上人 禪門老宿 初於湖南 有可隱之處 住錫數年 道力既成 歷遍雲水 忽過京洛 士女輻湊 望風而靡 所化無同 乃因名宰及善信居士固請 因雅適大願 訖復遊湖南 容儀有道骨焉 僕於壬申夏 制弭 錫曹溪 遂同住上社臺 果如素聞 其慕道超脫之心 著於語辭之表 每日扣問禪關 語琅琅然 因其曩日探翫景 却掃數聯 以資碧峯清澗眠食之一味 拈翰走爾。

같이 峻上人을 찾아 禪門의 오묘함과 종교적 영향을 몸소 체험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碧山深處結茅菴	푸른 산 깊은 곳에 띠풀 암자 지으니
菴下澄澄萬丈潭	암자 아래 맑고 맑은 만길 깊은 못이로세
行處懶從雲共去	가는 곳 되는대로 구름따라 같이 가고
住時閑與月同龕	머물 때도 한가로이 달 아래 절방에 함께 드네
煎茶小室烟生廚	차 달이는 작은 방엔 부엌인 양 연기나고
采藥遠峯雲滿籃	먼 산에서 약캐는 데 들바구니엔 구름만 가득하네
不二法門怎麼認	둘이 아닌 법문을 어찌 아리
前三三與後三三	이것 저것 모두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¹¹⁾

위 시는 심은스님을 산으로 보내면서 그의 詩冊에 쓴 시 5수 가운데 두 번째이다. 푸른 산 깊은 곳에 소박하게나마 텃집을 지어놓고 보니 맑고 맑은 못물에는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자태가 푸른 산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정처없이 떠도는 구름은 자유자재롭고, 스님과 함께 머무는 방은 달빛아래서도 정겹기만 하다. 차달이는 작은 방에선 마치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친숙하다.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정신없이 캐는데, 고개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사방이 온통 구름 속이다. 頸聯 부분이 이 시의 詩眼이다.

불교에서 茶는 음료이면서도 깨달음의 方便으로 쓰인다. 半陰半陽의 생태적 특성에서 차는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다면 이를 가라앉혀주고, 마음자리를 곧게 해준다. 마음자리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림도 없는 본래 청정한 자리이다. 그러나 인간의 무지로 인해 분별심을 갖게 되면서 佛性에서 멀어진 것뿐이다. 불가에서 이를 회복하는 매개체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茶인 것이다.

위 시의 구조를 살펴보면 頭聯부터 頸聯까지 서경으로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尾聯을 강조하기 위한 시적 장치로서 기능을 한다. 시인은 이미 경련에서 심은스님과 더불어 차 한 잔을 통해 자연과 합일되는

11) <送尋隱上人歸故山詩卷> 其二, 『梅月堂集』 卷三.

眞俗不二를 깨닫는다. 尾聯에 와서는 ‘둘이 아니다’란 화두를 어떻게 깨칠 것인가 하고 참구하는 중에 앞에서 셋이요, 뒤에서 셋이라는 말에서 단박에 깨친다. 셋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집착하고 분별하면 깨달음에서 더욱 멀어진다. 이를 위해서 분별심을 버려야 한다. 분별을 넘어선 자리에서 自性の 戒, 定, 慧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根本佛敎¹²⁾의 참뜻인 中道인 것이다.

一見淸標似舊知	언뜻 보아 깨끗한 儀表 옛 친구 같은데
羨牆面目已多時	面目を 사모한 지는 벌써 오래 되었소
節操落落松筠態	節操 크고 높은 모양 소나무와 대나무요
容止昂昂鸞鶴儀	몸가짐 밝고 높아 난새와 학의 의표로세
禪榻靜看滄海月	고요히 참선 의자에서 창해의 달을 보며
茶泉閑擾碧澗螭	다친에서 한가로이 푸른 못의 교룡을 길들이는 듯
從師問道他時去	어느 땐가 대사에게 도 물으러 가면
積習玄眸肯刮鑿	검은 눈동자에 쌓인 백태를 금칼 긁어주시오 ¹³⁾

위 시는 매월당이 수락산에 머무르고 있을 때 낙산사 선상인에게 주는 시 3수 중 첫 번째이다. 첫구에서 시인은 선상인의 인물됨을 한 눈에 알아본다. 시인은 단 한 번 봤을 뿐인데 깨끗한 의표가 옛 친구와 같다는 것은 자신이 품었던 청운의 꿈에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스님의 이름은 익히 들어왔지만 막상 만나고보니 과연 그 명성 그대로임을 인정한 것이다. 계속해서 시인은 스님의 풍모를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학의 모습을 대신하고 있다.

경련에 이르러 스님은 선정에 든다. 시인은 이 모습을 보고 마치 창해의 달을 보듯이, 차달이는 푸른 샘물에는 교룡이 춤추듯이 한다고 하여 마음

12) 지금까지 원시불교라는 이름이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초기와 원시는 불교를 단순히 시기적으로 분류한 개념으로 적절치 못하다. 근본불교는 석가세존의 깨달음이 모든 불교의 근원이 되며, 그 가르침이 모든 불교의 뿌리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이름이라고 본다. 이종표, 『근본불교』, 민족사, 2003, 5~6쪽 참조.

13) <洛山寺贈禪上人>, 『梅月堂集』 卷三.

속 깊이 스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는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내 어느 때엔가 佛道를 물으러 가거들랑 내 검은 눈동장에 낀 백태를 금 칼로 긁어내어달라’고 가르침을 청한다. 여기서도 매월당과 선상인을 이어 주는 매개체로 茶가 등장한다. 비록 이 시에서는 소재이지만 차 한 잔을 올리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 교감은 나누게 된다. 불가에서 차를 올리는 것은 가르침을 청하는 것과 같은 뜻을 지닌다. 이와 같은 경우는 불가의 禮佛儀式 중 부처상에 올리는 茶偈가 중요한 참고가 된다.

我今清淨水	제 이제 청정수를 올리
變爲甘露茶	감로차로 변하여지이다
奉獻三寶前	삼보전에 바치오니
願垂哀納受	원컨대 받아주옵소서 ¹⁴⁾

위 다게에서 보듯이 불가에 차 한 잔을 올리는 것은 곧 불도를 이루기 위한 가르침을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매월당 또한 법력이 높은 선상인에게 가르침을 청하는데 茶가 중요한 매개가 되었음을 위 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매월당은 峻上人, 尋隱上人, 禪上人 이외에도 敏上人¹⁵⁾, 昇義道人¹⁶⁾, 山上人¹⁷⁾ 등과 교유를 통한 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茶라고 하는 것은 茶 한 잔을 통해 이들과 교유하는 데 적잖은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相卽相入의 禪味

한시의 미학에서 情景論은 중요한 과제이다. 정과 경의 표현은 한시의

14) 안진호, 『釋門儀梵』 상권, 174쪽.

15) <贈敏上人>, 『梅月堂集』 卷三.

16) <題昇義道人詩卷>, 『梅月堂集』 卷三.

17) <醉次四佳韻贈山上人>, 『梅月堂集』 卷三.

고전적인 기법이면서 한시 이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梅月堂의 詩에서 情과 景은 相即相入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이 점은 그가 詩는 天機의 자연스런 노출이기 때문에 억지로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며, 聲律의 구속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詩語를 구사하여 性情의 자연스러운 發露를 보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禪은 대상을 분별하지 않고 직관적 깨달음과 證得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특성이 있다. 中國 明末清初代の 詩論家인 王夫之(1619~1692)는 情과 景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情과 景은 이름은 둘이지만, 실제로는 나눌 수 없다. 시를 묘하게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양자를 자연스럽게 결합시킬 수 있어 가장자리가 없다. 빼어난 시는 情 가운데 景이 있고, 景 가운데 情이 있다. … 情과 景이 비록 한 가지는 마음에 있고, 한 가지는 사물에 있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실제로 그것들은 서로 생겨나는 것이다.¹⁸⁾

시는 뜻을 말하는 것[詩言志]이다. 뜻은 景에 情을 의지하여 표현할 수도 있고, 반대로 情에 景을 의지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어느 것이 먼저이며, 어느 것이 나중인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정과 경이 서로 어우러져 시인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만이다. 佛敎詩에서도 이와 같다. 정과 경은 의식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정과 경이 상즉상입할 때 言外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선적 깨달음의 표현이며, 禪心의 표현인 것이다.

坐久不能寐	오래도록 앉아 있어도 잠 못 이루어
手剪一寸燭	한 치 남은 촛불 심지 베어 내었네
霜楓聒我耳	서릿바람 소리 내 귀에 들려오더니

18) 王夫之, <夕堂永日緒論>, 『王船山遺書』: 情景名爲二 而實不可離 神於詩者 妙合無垠 巧者則有情中景 景中情 … 情景雖有在心 在物之分 而景生情 情生景. (劉若愚 著/李章佑 驛, 『中國詩學』, 明文堂, 1994, 150쪽에서 재인용)

微霰落床額	싸락눈 침상머리에 떨어졌네
心地淨如水	마음이 물처럼 깨끗하니
翛然無礙隔	자유자재하여 막히고 걸림이 없네
正是忘物我	이것이 바로 사물과 나를 잊은 것이니
茗椀宜自酌	혼자서 잔에 차를 따라 마신다네 ¹⁹⁾

茶 한 잔을 통해 마음의 평상심이 담담하게 표현된 시이다. 시 앞 부분에서는 번뇌에 고민하는 시인의 심사가 담겨 있다. 깊은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시인은 어둠을 사르기 위해 촛불의 심지마저 베어버린다. 한기 머금은 바람이 귀를 어지럽히고 싸락눈이 침상머리에 떨어졌다고 했으니 시인은 번뇌망상 탓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뒷 부분에서 반전이 일어난다. 시인은 순간 마음이 물처럼 깨끗하다 하여 妄念을 여인 本覺을 드러내고 있다. 더 이상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모습에 物我가 일체된 경지를 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에서 혼자 차를 잔에 따라 마신다고 한 표현은 시인이 茶 한 잔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아닌 깨달음을 茶 한 잔에 담았다는 평상심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이 시에는 茶는 깨달음의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며 깨달음의 방편으로서 차를 시에 假託한 것이다.

불교에서 평상심은 一心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래 구축되어 있는 본성을 유지하고, 모든 차별상과 주객의 분별의식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렀기에 이를 一心이라 한 것이다. 元曉는 일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일심이란 무엇인가. 더러움과 깨끗함의 모든 법은 그 성품이 둘이 아니고 참됨과 거짓됨의 두 문은 다름이 없으므로 一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이 둘이 아닌 곳에서 모든 법은 가장 진실되어 허공과 같지 않으며, 그 성품은 스스로 신령스레 알아차리므로 마음이라 이름한다. 이미 둘이 없는데 어떻게 一이 될 수 있는가. 一도 있는 바가 없는데 무엇을 心이라 말하는가. 이러한 도리는 말을 여의

19) <古風> 其十六, 『梅月堂集』 卷一.

고 생각을 끊은 것이니 무엇이라고 지목할 지는 모르겠으나 억지로 이름 붙여 一心이라고 하는 것이다.²⁰⁾

一心은 글자 그대로 한 마음을 말한다. 원효에게 일심은 染과 淨, 眞과 俗 등 대립적이고 분별적인 사유체계에서 여의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一心에 直觀한다는 것을 見性이라 하여 불법의 궁극적 실체로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선과 차의 관계에서 一如라 함은 일심의 함의와 같은 것이다.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과정을 통해 분별하는 마음을 여의고, 서로를 수용하기에 相入하며, 수용하여 주객의 구별이 여의기에 相卽이라 할 수 있다. 곧 茶 한 잔을 통해 相卽相入의 연기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閑中經數卷 한가하면 경전 두어 권 읽고
渴來茶七椀 목마르면 일곱 사발의 茶를 마시네²¹⁾

위 시에서 그는 七椀茶를 마신다고 했다. 七椀이라고 한 것은 中國 唐代의 시인인 盧仝(775~835)의 「走筆謝孟諫議寄新茶」²²⁾에서 따온 것으로 차를 마실 때 느껴지는 일곱가지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 첫째 잔은 입술과 목을 적셔주고, 둘째 잔은 고민을 씻어주고, 셋째 잔은 무더진 붓끝이 풀리고, 넷째 잔은 가벼운 땀이 솟아 평생의 불만이 사라지고, 다섯째 잔은 살과 뼈를 맑게 하고, 여섯째 잔은 신선의 영과 통하게 하고, 일곱째 잔은 마시지도 않았는데 두 겨드랑이에서 바람이 일어난다고 하여 茶 한 잔의 정신적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元曉, 『大乘起信論疏』, 『韓國佛教全書』 卷一, 1979 : 何爲一心謂染淨諸法其性無二 眞妄二門不得有二 故名爲一 此無二處 諸法中實 不同虛空 性自神解 故名爲心 何得有一 一無所有 就誰曰心 如是道理 離言絕慮 不知何以目之 強號爲一心也.

21) <放言> 其六 5~6句, 『梅月堂集』 卷一.

22) 김길자 譯註, 『中國茶詩』, 현암사, 1999, 217~222쪽.

剗竹引寒泉 대 쪼개어 찬 샘물 끌어다 놓고
 琅琅終夜鳴 줄줄 밤새도록 울린다네
 細聲和夢咽 잔잔한 소리 꿈과 섞여 목메이고
 清韻入茶烹 맑은 운치 차끓이는데 들어간다네²³⁾

이 시는 전체적으로 생동하는 느낌을 준다. 대나무를 쪼개 그 사이로 흘러가는 샘물소리로 시작하여 차끓이는 소리로 끝맺고 있어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차를 내주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이렇듯 그는 茶 한 잔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연과 함께 즐겨 마시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대나무 가운데를 갈라 물을 길어오니 그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싫증이 나지 않는 표정이다. 물이 가물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아주 잔잔하게 흘러가는 소리가 마치 꿈속에서 잠꼬대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는 그 소리마저 차끓이는 소리에 동화시키고 있는 데, 이는 차를 통해 삼매경에 빠진 자신을 물아일체의 경지에서 선적 수행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兩耳聊聊獨坐時 두 귀에 아무런 들림 없이 홀로 앉아 있을 때
 半簾斜日映花枝 반쯤 걷은 발에 비긴 해는 꽃가지를 비치네
 年來漸覺無拘束 요사이 점점 구속없음을 깨달으니
 滿肚幽懷卽是詩 배속에 가득 품은 마음 그것이 시라네²⁴⁾

홀로 앉아 있다가 사람을 만나 茶 한 잔 하며 지은 시이다. 두 귀에 아무런 들림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시비에 구속됨이 없다는 뜻이다. 반쯤 걷어올린 발 너머로 바라보는 해는 누엿해졌고, 길게 늘인 그림자가 꽃가지를 비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3句에서 시인의 자유로움은 자신이 스스로를 아는 正念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념은 物我忘形이라 할 수 있는데, 시비를 떠나고 물아의 사이를 없앨 수 있다면 서로 잊는 相忘의 경

23) <竹筧>, 『梅月堂集』 卷四.

24) <獨坐逢人茶賦詩>, 『梅月堂集』 卷一.

지²⁵⁾를 말한다. 정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를 주관적 시각으로 고정시키거나 자신을 내세우는 등의 번뇌는 일체 용납이 되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4句에서 시인은 정념의 상태에서 선적으로 충만된 정신을 시로써 표현하여, 茶 한 잔으로 시인과 相即相入하는 禪茶一如의 경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松風輕拂煮茶烟	솔바람 불어 차달이는 연기 몰아
裊裊斜橫落澗邊	하늘하늘 흘날리며 시냇가에 떨어지네
月上東窓猶未睡	동창에 달 떠도 잠 못 이루고
挈瓶歸去汲寒泉	병들고 돌아가 차디찬 샘물 길네 ²⁶⁾

‘차를 달이며’라는 시 첫 번째이다. 차를 달이는데 마침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솔솔 불어온다. 바람에 실려간 연기는 마침 하늘하늘 춤을 추는 듯 가로로 길게 날아가면서 시냇가에 떨어져 사라진다. 시인과 연기가 하나가 되는 相即相入의 詩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차를 달이는 시인의 시선은 시원스럽기만 한데 시인의 표정은 어둡다. 근심은 끊이지 않았던 탓인지 달이 휘영청 떠있어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갑자기 차 한 잔 생각이 나서 달빛을 받으며 병들고 나아가 샘물을 길으러 간다. 무엇이 시인을 근심으로 몰아넣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 시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自怪生來厭俗塵	원래 티끌세상 싫어함을 스스로 괴이여기니
入門題鳳已經春	들어올 적 鳳자 쓴 게 ²⁷⁾ 좋은 날 다 지나갔네

25) 李鍾殷, 『韓國의 道敎文學』, 태학사, 1999, 187쪽.

26) <煮茶> 其一, 『梅月堂集』 卷五.

27) ‘題鳳’은 중국 진나라 죽림칠현의 한 분인 嵇康이 呂安이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냈는데, 서로 생각이 날 때마다 천리를 마다않고 달려갈 정도였다. 어느 날 여안이 혜강을 찾아왔는데, 마침 혜강은 부재중이었다. 이에 여안은 문 위에 ‘鳳’이란 글자만 남기고 떠났다. ‘鳳’이란 破字하면 凡과 鳥가 된다. 곧 평범한 새란 뜻으로 혜강이 뛰어난 인물로만 알았다가 알고보니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煮茶黃葉君知否 차달이는 누런 잎새 그대는 아는지
却恐題詩洩隱淪 시 쓰다 숨어 삶이 누설될까 두렵네²⁸⁾

매월당의 삶은 늘 불안했다. 일정한 거처없이 전국을 주유하며 지내야만 했던 그의 불행은 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울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어릴 적부터 티끌세상과 멀리한 것이 괴이하다고 했다. 문에다가 ‘鳳’를 썼다는 것은 자신을 받아줄 세상을 만나지 못한 데 대한 한탄이 담겨있다. 이미 나이는 들었으니 좋은 시절이 아쉽기만 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그는 차 한 잔으로 위로를 얻기 위해 차를 달이려는데 누런 잎을 보자 두렵다고 했다. 왜 그랬을까? 시인은 누런 잎에다가 시를 썼을 것이다. 세상에 대한 아쉬움을 차마 종이에 쓰지 못하고 대신 누런 잎에다 쓴 것이다. 행여 자신이 썼던 누런 잎에 시냇물에 흘러가 누가 볼세라 서둘러 태워야만 했던 매월당의 신산스런 삶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게 한다.

年年茶樹長新枝 해마다 차나무에 새 가지 자라는데
蔭養編籬謹護持 그늘에 키우느라 울을 엮어 보호한다
陸羽經中論色味 육우의 다경에는 빛깔과 맛 논했는데
官家榷處取槍旗 관가에서는 어린 찻잎만을 바치라고 하네
春風未展芽先抽 봄바람 불기 전에 싹이 먼저 피고
穀雨初回葉半披 곡우절 돌아오면 잎이 반쯤 피어나네
好向小園閑暖地 조용하고 따뜻한 작은 동산을 좋아하니
不妨因雨着瓊豨 비에 옥같은 꽃 드리워도 무방하리라²⁹⁾

梅月堂은 차를 마시기도 하면서 직접 재배까지 하였다. 그는 차의 성품을 진정으로 이해했던 茶人이었다. 그는 경주 금오산이 차를 재배하기에는 알맞지 않음을 알고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차밭 둘레에 울을 엮어 세

28) <煮茶> 其二, 『梅月堂集』 卷五.

29) <養茶>, 『梅月堂集』 卷十二.

운다. 차나무는 半陰半陽性 식물이라 그늘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진다. 半陰半陽은 곧 梅月堂의 처지와 닮은 꼴이다. 이 시의 제목이 「養茶」을 고려해 볼 때, 기른다는 의미는 자신을 두고 한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뿌리가 땅속으로 곧게 내리듯 그의 심지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이는 茶가 자연의 일부로서 항상성을 지향한다면, 차를 재배하고 만들고 마시는 자신은 유연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의 시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질서와 조화를 적극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차 만드는 수고로움을 모르고 오로지 세금만 걷으려고만 하는 관리 때문에 백성들의 고충만 늘어가는 현실에서도 그는 침묵으로 저항한다. 때는 茶의 새순이 처음으로 올라오는 곡우 무렵이다. 梅月堂은 햇차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비에 옥같은 꽃’은 아침이슬을 비유한 것으로, 아침 이슬을 맞은 찻잎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永日撰詩史	하루내내 詩史를 다듬고
燈下修茶經	등불 밝혀 다경을 읽네
好古漸知趣	옛것 좋아 취미 더해지니
博學無所成	박학해도 이룬 것 없다네
分座與山人	자리를 산사람에게 나눠주니
頽醉同田更	취해 누운 것이 농가의 늙은이일세
霜芋收後園	서리맞은 토란을 뒤뜰에서 거두고
秋菊盈前庭	가을 국화는 앞뜰에 가득차네
人以紛雜喧	사람들은 어수선히 지껄이는데
我以堅白鳴	나만 견백 ³⁰⁾ 선생 때문에 운다네
唯有麴先生	오직 국선생만 있으니
千古知我情	천고에 내 뜻을 알아주네 ³¹⁾

30) 전국시대 公孫龍의 퀘변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눈으로 돌을 볼 때는 빛이 흰 것은 알지만 굳은 것은 모르고, 손으로 돌을 만질 때는 그 굳은 것은 알지만 흰 것은 모른다. 따라서 堅白石의 존재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是非, 同異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말하는 것이다.

31) <和陶> 其十六, 『梅月堂集』 卷八.

위 시는 매월당이 무묘한 산사생활을 달래기 위해 옛시를 읊으면서 도연명의 시에 화답하는 시 20수 중 열여섯번째이다. 하루종일 옛시권을 벗삼아서 시의 역사를 살펴보고, 해저물면 中國 唐代 陸羽(727?~803?)³²⁾가 저술한 『茶經』을 닦는다고 했다. 옥우가 제시한 대로 법도에 맞게 차 한 잔을 우려내어 禪茶三昧에 든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론 것은 없으니 농사짓는 늙은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서리 맞은 토란을 거둬들이고 가을 국화는 뜰에 가득한데, 사람들은 어수선히 지껄인다. 오직 나만은 淸白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은 매월당 당대의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기, 질투, 모함, 소외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매월당은 차와 술로 자신의 울분을 다독거린다. 오직 국선생만이 자신을 알아주니 천년 뒤에 누군가를 나를 알아주리라 하는 호기가 시의 끝에서 강한 여운을 남겨준다.

4. 맺음말

이상으로 梅月堂의 茶詩를 중심으로 禪茶一如의 詩境을 살펴보았다. 梅月堂은 옥우의 『茶經』처럼 茶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성현의 도와 유학적 이상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 불도를 이루기 위해 茶를 詩化한 것이다. 비록 그가 젊은 시절 꿈꾸었던 이상은 현실과의 불화로 인한 方外人的 삶의 처지에 놓여 좌절되고 말았지만, 茶가 지니는

32) 唐나라 復州 竟陵에서 태어났으며, 최초로 茶 전문서인 『茶經』을 펴내 茶聖으로 불린다. 號는 竟陵子, 桑苧翁, 東岡子 이다. 차의 명산지인 湖州에 정착한 옥우는 어린 시절 龍蓋寺에서 터득한 차에 관한 지식을 심분 활용하여 차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는 한편, 당대의 시인이자 차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비구승 皎然과 교분을 갖는다. 皎然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옥우는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차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28세 때 『茶經』의 草稿를 쓰고, 41세에 『茶經』을 완성하였다. 옥우의 『茶經』은 中國 茶道의 지침이 되었으며 茶文化를 보급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金明培 譯, 『茶經』, 太平洋博物館, 1982, 96~100쪽 참조.).

성품을 시 속에 투영시킴으로써 그의 문학은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곧 그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기보다는 이보다 더 나은 최선의 상태를 이뤄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茶를 통해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金時習, 『梅月堂全集』,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 『國譯 梅月堂集』,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艸衣意恂, 『艸衣全集』, 아세아문화사, 1985.

元曉, 「大乘起信論疏」, 『韓國佛教全書』 卷一, 1979.

金明培 譯, 『茶經』, 太平洋博物館, 1982.

김길자 譯註, 『中國茶詩』, 현암사, 1999.

심경호, 『김시습평전』, 돌베개, 2003.

劉若愚 著/李章佑 驛, 『中國詩學』, 明文堂, 1994.

이도흠, 「화두와 선시의 화쟁기호학적 연구」, 『백련불교논집』 제11집, 2001.

李鍾殷, 『韓國의 道敎文學』, 태학사, 1999.

이중표, 『근본불교』, 민족사, 2003.

임준성, 『매월당 불교시의 미학』, 고봉학술원, 2004.

<투고일 : 2006. 6. 30.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Abstract>

The nature of tea is identical to that of the way of Buddhist meditation

Lim, Jun-sung

Among about 2,200 poems of Maewoldang Kim, Si-seup(1435~1493), 73 poems, the number of his works which was written based on tea, is bequeathed to us now. This fact is significant especially when we consider that he left the most tea-poems since the first introduction of tea in Korea. He didn't just drink tea and write tea-poems based on the feeling he had when he had tea. He grew tea plants and made tea, and he tried to make his own life fit into the nature of tea. This indicates that tea had relatively great importance in his life.

To study his poems means that he thought of tea not just as a drink but as a way of Buddhist meditation. Maewoldang didn't leave any systematic documents. He just wanted to realize his Confucian ideals and the sages' instructions. Also he wrote tea-poems to learn the teachings of Buddha. Though he lost sight of the ideal because he was in discord with the actual life, his literature came to further maturity by making the nature of tea reflected into his tea-poems.

In other words, he didn't take a conciliatory attitude toward the actual life, but tried to express his positive attitude to do his best in everything through tea-poems.

Keywords : Maewoldang(梅月堂), Kim Si-seup(金時習), Buddhist meditation, tea-poems

к с і